

LG전자, 흡봇 ‘로니’ 공개… 100℃ 스팀 등 프리미엄 승부수

강력한 청소 성능·인체공학 설계 독자 보안시스템 ‘LG 쉴드’ 탑재 “차원이 다른 사용경험 제공할 것”



LG 흡봇 AI 오브제컬렉션 로니(RONi).

/LG전자

LG전자가 위생 관리와 공간 디자인을 앞세운 프리미엄 청소로봇 신제품을 선보이며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청소 성능뿐 아니라 설치 방식과 인테리어 요소까지 차별화해 프리미엄 가전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가 청소 성능은 물론, 위생 관리 편의성과 디자인까지 혁신한 LG 흡봇 AI 오브제컬렉션 로니(RONi)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로니는 고객의 주거 환경과 인테리어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주방 싱크대 하단 걸레받이 공간에 설치하는 자동 급배수형 ‘히든스테이션’ ▲집안 어느 곳이나 독립적으로 배치 가능한 물통형 ‘오브제스테이션’ 두 가지 라인업으로 출

시된다. 히든스테이션은 거치대(스테이션) 높이가 15cm에 불과해 별도의 하부장 시공이나 기존 수납공간의 희생 없이 걸레받이 공간을 그대로 활용해 설치할 수 있다. 청소로봇을 완벽하게 숨겨 미니멀한 공간을 완성하고 싶은 고객에게 안성맞춤이다. 반면 오브제스테이션은 협탁 디자인을 갖춰 다양한 생활 공간에 조화롭게 배치

할 수 있다. 제품 높이, 손잡이 두께, 물통 인출 높이 등도 인체 공학 관점에서 설계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LG전자는 로니에 세계 최초로 본체와 스테이션 모두에 100℃ 스팀 기능을 적용했다. 청소 시 100℃ 스팀을 물결레에 분사해 바닥의 찌든 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청소 후에는 스테이션에서 100℃ 스팀*과 온수 세척으로 유해균 4종

(황색포도상구균·녹농균·폐렴간균·대장균)을 99.99% 없앤다.

청소 성능도 한층 끌어올렸다. 로니는 30W의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며, 180rpm(분당 회전수)으로 고속 회전하는 물결레가 바닥의 찌든 때를 깨끗하게 닦아낸다.

로니는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AI 사물인식’ 기술과 본체에 탑재된 8개의 센서로 공간 구조를 분석하고 전선·화분·반려동물의 배설물 등 120여종의 물체를 구분해낸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물은 알아서 안전하게 회피하며, 오염물질은 최적의 방식으로 깔끔하게 제거한다.

뿐만 아니라 로니는 독자 보안 시스템 ‘LG 쉴드(LG Shield)’를 탑재해 수집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암호 키를 분리 저장하는 등 보안 위협을 최소화했다. 또한 청소 후 스테이션 도어가 닫히는 구조를 갖춰 카메라 노출에 대한 고객의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시장조사업체모르도르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로봇청소기 시장이 2026년 70억5000만달러에서 2031년 132억9000만달러로 성장하며 연평균 13.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홈 확산과 AI 기반 자율주행, 자동 급배수 등 프리미엄 기능이 시장 성장을 이끌 것으로 분석된다.

고객은 오는 7월 2일부터 LG전자 베스트샵과 옐지닷컴, 쿠팡 등에서 로니를 구매할 수 있다. 출하가는 히든스테이션과 오브제스테이션 모델 모두 219만원이다.

LG전자손장우리빙솔루션사업부장은 “세계 최초로 본체와 스테이션 모두에 100℃ 스팀을 적용해 위생 관리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주거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고객에게 차원이 다른 사용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한화큐셀, 정부 R&D 기반 탠덤 모듈 실증·신뢰성 검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과제 수행 차세대 태양광 시장 선점 ‘청신호’



한화큐셀 판교 R&D센터에서 차세대 셀 기술을 연구하는 모습. /한화솔루션

한화큐셀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기반으로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모듈 실증과 신뢰성 검증에 나서며 차세대 태양광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낸다.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 한계를 넘어설 기술로 평가되는 만큼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고효율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우주태양광 등 신규 응용 분야로 사업 기반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하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일환인 ‘상용면적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탠덤 모듈 기술개발 및 실증’ 과제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과제에서 한화큐셀은 주관 연구개발기관을 맡아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된 산·학·연 컨소시엄을 이끈다. 연구는 올해 4월부터 3년간 진행된다. 컨소시엄은 모듈 효율 28% 이상, 1.7㎡ 이상의 상용면적 탠덤 모듈 구현을 목표로 핵심 공정 개발과 모듈화, 신뢰성 검증 기술 확보에 나선다.

한화큐셀은 실제 양산을 염두에 둔 제조 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연구기관과 함께 옥외 실증과 사업성 분석을 병행하며 성능과 신뢰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상용화 과정에서 필요한 개선 요인을 도출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기업과의 협력도 확대해 국내 차세대 태양광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탠덤 셀은 빛을 파장대역별로 흡수할 수 있어 기존 실리콘 셀보다 발전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탠덤 셀의 이론 한계 효율은 44%로 실리콘 셀(29%)보다 약 1.5배 높아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차세대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탠덤 기술은 무게 대비 높은 발전효율을 구현할 수 있고 기존 우주용 태양전지보다 제조비용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기술 안정성이 확보되면 지상 태양광을 넘어 우주태양광 시장으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화큐셀은 한국과 독일에서 운영 중인 탠덤 파이프라인과 이번 연구개발 과제를 연계해 상용면적 모듈의 실증 데이터를 축적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양산 전환에 필요한 기술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2029년 탠덤 기술 상용화를 추진한다.

한화큐셀 문수진 판교R&D센터장은 “이번 과제는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의 상용화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증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한화큐셀은 축적해 온 셀·모듈 기술력과 양산 역량을 바탕으로 탠덤 기술의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고 국내 태양광 산업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대한전선 케이블 제조현장 AI 도입

대한전선이 초고압 케이블 제조현장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생산체계 고도화에 나선다.

대한전선은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추진하는 ‘산업현장 문제해결형 산업 AI 에이전트 기술개발(R&D)’ 사업에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제조업 AI 대전환(M.AX) 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연구개발 과제다. 산업 현장의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업 특화형 AI 에이전트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제조 공정에 적용해 생산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한전선은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초고압 케이블 생산 공정에서 축적한 운영 노하우와 데이터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생산-품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주요 공정 변수를 예측·관리해 생산성과 품질 안정성을 높인다. /원관희 기자

삼성전자, 클라우드 기반 교육 솔루션 선배 ‘Let’s Grow with LG전자’ 1기 교육생 모집

“유연하고 매끄러운 학습환경 제공”



삼성전자가 ISTE에서 삼성 교육용 전자칠판에 탑재된 새로운 맞춤형 교육 솔루션을 공개했다. /삼성전자

교사들이 교실을 옮길 때마다 처음부터 환경을 세팅하던 불편이 사라진다. 삼성전자가 클라우드 기반 계정 로그인으로 어느 전자칠판에서든 자신만의 수업 환경을 그대로 불러오는 교육 솔루션을 공개했다.

2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 오렌지카운티컨벤션센터(OCCC)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교육기술 전시회 아이에스티(ISTE) 라이브 26에 참가해 교육용 전자칠판에 탑재되는 새로운 교육 솔루션을 선보였다. ISTE 라이브는 미국 국제교육기술협회(ISTE)가 주관하는 행사로 80여 개국에서 500개 이상 기업과 약 1만7000명의 교육 관계자가 참여해 최신 교육 기술과 미래 교육 트렌드를 공유한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선보인 솔루션은 ‘삼성 계정 관리 솔루션(AMS)’과 ‘삼성 A

I 어시스턴트 앱’ 두 가지가 있다. 모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삼성 전자칠판 라인업에 적용할 수 있다.

김형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디지털 교육 환경이 고도화될수록 기기뿐 아닌 ‘사용자 경험’ 중심의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삼성 교육용 전자칠판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더욱 유연하고 매끄러운 학습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LG전자 취업준비 청년 역량 강화

청년 고용 한파가 길어지는 가운데 LG전자가 취업 준비 청년이 스마트팩토리·인공지능 전환(AI)·디지털 마케팅 등 미래 산업 직무 역량을 쌓도록 돕는 실무 교육에 나선다. 대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을 설계해 청년을 키우는 정부 사업에 발맞춰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청년을 정조준했다.

LG전자는 교육 프로그램 ‘Let’s Grow with LG전자’를 신설하고 1기 교육생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주요 기업들과 함께 추진하는 청년 직업 훈련 사업 ‘K-뉴딜 아카데미’의 일환이다. 대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청년의 직무 역량을 키우고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사업으로, LG전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 등과 함께 참여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구남영 기자

교육은 ▲스마트팩토리 ▲AI ▲디지털 마케팅 등 3개 트랙으로 나뉜다. 스마트팩토리 트랙은 제조 공정, 자동화 시스템, 설비 운영, 생산 데이터 활용 등 제조 현장 직무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 트랙은 데이터로 문제를 정의하고 AI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LG전자의 업무 프로세스를 경험하도록 했다. 디지털 마케팅 트랙에서는 콘텐츠 기획, SNS 채널 운영 등 데이터 기반 마케팅 실무를 다룬다.

1기 모집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다.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거쳐 최종 참가자를 선발하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 준비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LG전자는 실무 프로젝트, 취업 준비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작성 지원 등을 통해 교육 경험이 취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현대차-채비 전국 ‘PnC 서비스’ 개시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최대 민간급속 충전 1위 사업자 채비와 손잡고 ‘플러그 앤 차지(이하 PnC)’ 서비스를 전국 채비 충전소로 확대한다. 기존 현대차그룹 초고속 충전소 ‘이피트(E-pit)’에서만 가능했던 서비스를 민간 충전망까지 넓히며 전기차 충전 생태계 확대에 속도를 낸다.

현대차그룹은 29일 채비와 함께 PnC 기술 적용을 완료하고 전국 채비 충전소에서 PnC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이피트 83곳에서 제공되던 PnC 서비스를 채비의 전국 약 1500개 충전소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일반 전기차 충전소가 회원인증카드나 신용카드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PnC가 적용된 충전소는 차량과 충전기 사이에 암호화 통신을 적용해 고객이 충전 케이블 연결만으로 간편하고 안전한 충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양성운 기자 ysw@